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2.(월) 16:30
(지 면) 2026. 11. 3.(화) 조간

대통령의 외교, 세계를 품다 : 선물에 담긴 기록의 가치를 선보이다

- 대통령기록관, 11월 3일부터 2027년 9월까지 동남·서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대통령 선물 및 외교 기록물 전시 개최
- 행안부 차관, 11월 2일(월) 대통령기록관 방문하여 기획 전시 준비 상황 점검,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시설 운영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기록관은 2026년 11월 3일(화)부터 2027년 9월 26일(일)까지 대통령기록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특별 기획전 「대통령의 외교, 세계를 품다(동남·서남아시아·오세아니아)」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 기획전은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각국의 문화·예술·역사와 연계해 소개하는 대륙별 시리즈의 세 번째 전시이다. 2024년 '아프리카·중앙아시아 편'('24.11.29.~'25.7.27.)과 2025년 '유럽 편'('25.8.29.~'26.7.26.)에 이어, 올해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그 범위를 넓혀 대통령 선물이 전하는 정상외교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대륙별 특별전의 대미를 장식하고자 마련됐다.

>> 56점의 대통령 선물로 조명하는 인문학적 외교의 정수

전시는 총 56점의 대통령 선물을 통해 정상 간의 외교적 교류와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예술의 정수를 선보인다. 단순한 기념을 넘어 선물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인문학적 정신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기획했다.

도입부에서는 시리즈 전체의 주제인 “국가 정상이 주고받는 선물은 외교의 언어”임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1부 ‘정상외교의 약속’에서는 먼저 19점의 선물을 진열한 높이 2.5m의 대형 수장 타워를 먼저 만난다.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하는지를 기념패, 그림, 대통령의 연설 등으로 소개한다. 특히 6·25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 전통 민요이자 군인들도 즐겨 부르던 연가('포카레카레 아나')는 관람객의 귀에도 익숙한 멜로디로 다가간다.

2부에서는 '문화와 예술로 말을 건넨 지도자들'을 소개한다. 전통악기, 예술가의 그림과 조각품 등의 선물은 문화와 예술이 외교의 긴장 완화와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전시는 선물에 관한 설명문을 진열장 외에도 바닥, 벽면 등에 인쇄해 다채로운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

이어지는 제3부에서는 '선물에 깃든 정신'인 환대와 예의, 신념을 다양한 연출과 방법으로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조성한 아카이브 룸에서는 대통령 순방 사진 콜라주와 라이트박스로 옛 아날로그 필름과 인화 사진의 물성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시 개막에 앞서, 11월 2일(월)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획전시실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이번 전시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대통령 기록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대통령 선물을 통해 정상외교가 갖는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안대희 (044-211-2251)
		담당자	기록연구관	김미연 (044-211-224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2026년 대통령기록관 기획전시 개요

□ 전시 개요

○ **(전 시 명)** 「대통령의 외교, 세계를 품다」 (동남·서남아시아·오세아니아)

○ **(주요내용)** 대통령이 받은 각국의 선물(56점)을 문화·예술과 연계하여 소개

○ **(전시기간)** 2026년 11월 3일 ~ 2027년 9월 26일

○ **(장　　소)** 대통령기록관 1층 기획전시실

□ 전시 내용

구 분	전시 내용
전시를 시작하며	◦ 아시아, 태평양, 오세아니아로 이어지는 문화적 교류와 외교 선물의 의미 소개
1부. 정상외교의 약속	◦ 관계의 문을 열다 - 첫 만남에서 주고 받은 정상의 선물(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 함께 새긴 약속 - 아세안+3 정상회의, 한-말레이시아 수교 50주년, 동반자(인도와 캄보디아) ◦ 함께 지켜낸 시간 : 6·25전쟁 참전의 기록(호주와 '가평대대') ◦ 노래로 남은 인연 : '포카레카레 아나'(뉴질랜드-마오리 민요)
2부. 문화와 예술로 말을 건넨 지도자들	◦ 예술로 건넨 인사 - 전통악기(태국), 그림(싱가포르, 인도), 조각·저서(필리핀) 등을 선물한 정상 ◦ 여성 지도자의 선물 - 은제보울(파키스탄), 화병·유리공예품(뉴질랜드) ◦ (사이드 스토리)박항서와 한국인 지도자들 - 축구(베트남), 사격(베트남), 태권도(태국) 대표팀을 이끈 한국 스포츠 리더들
3부. 선물에 깃든 정신	◦ 인도가 건넨 신념과 인연 - 간디의 비폭력(아힘사)과 진리(사티아그라하) 정신 / "코리아는 동방의 등불" ◦ 대륙을 담은 선물 - 자비와 봉사(테레사 수녀), 강인함과 인도(引導)(고사리 모형 브로치, 뉴질랜드) ◦ 먼 길을 건너온 선물 - 인도네시아의 범선, 스리랑카의 코끼리상, 파키스탄의 공예장식품 ◦ 손님을 맞는 예 - 자수실크보자기(베트남, 정성), 빈랑나무열매 용기 세트(말레이시아, 환대) ◦ (사이드 스토리)두 정상의 뉴델리 지하철 11개 정거장
전시를 나오며	◦ 아카이브 서랍(문서)과 라이트박스(사진) 경험

□ 전시 주요내용

<전시를 시작하며>

○ 아시아, 태평양, 오세아니아로 이어지는 문화적 교류와 외교 선물의 의미 소개

<제1부. 정상외교의 약속>

○ 정상외교의 첫 걸음에서 주고 받은 선물(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의 역사와 아세안(ASEAN) 관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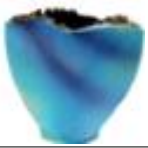
○ (사이드스토리)6·25 참전의 우정(호주), 포카레카레아나(뉴질랜드 민요)

			
(싱가포르) 용조각	**(베트남)** 자개그림	**(캄보디아)** 닭 모형 은세공	**(말레이시아)** 은제 티세트

<제2부. 문화와 예술로 말을 건넨 지도자들>

○ 문화·예술 작품을 선물한 국가들(태국, 필리핀 등)

○ (사이드스토리)박항서와 한국인 지도자들(축구, 사격, 태권도 등)

		
(뉴질랜드) 화병	**(태국)** 고유 악기, 소 두앙	**(필리핀)** 조소 작품

<제3부. 선물에 깃든 정신>

○ 비폭력과 진리의 정신(간디), "코리아는 동방의 등불"(타고르), 강인함과 끈기(뉴질랜드) 등 환대와 정성의 대통령 선물 소개

○ (사이드스토리)한국-인도 두 정상의 뉴델리 지하철 11개 정거장

			
(인도) 간디 흉상	**(인도)** 테레사 수녀 관련 책	**(스리랑카)** 보석장식 코끼리상	**(뉴질랜드)** `은빛 고사리(Silver Fern)` 모형 브로치

<전시를 나오며>

○ (아카이브룸) 아카이브 서랍(문서)과 라이트박스(사진)를 활용한 기록 경험